



천명훈



정민호

# 트로트 좀 부른다는 남성들 다 모였다

진화한 만큼 시청률과 화제성 상승 속도도 따라 잡기 어려울 만큼 폭발적이다. 자체 기획한 '미스터트롯'으로 트로트 오디션 시장을 선점한 TV조선 '미스터트롯' 이야기다.

'미스터트롯'이 낳은 송가인 신드롬에 "나 트로트 좀 부른다"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모조리 '미스터트롯'에 몰리면서 불거리와 들을거리가 한층 풍성해졌다.

'미스터트롯'도 5%대(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라는 준수한 시청률로 출발해 마지막회에서 18.1%까지 치솟는 성과를 냈지만, '미스터트롯'은 첫 방송부터 12.5%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이며 어디까지 득주할지 주목된다. 이 프로그램은 CJ ENM과 닐슨코리아가 매주 발표하는 화제성 지수, CPI 리포트에서도 첫 방송 직후 1위를 차지했다.

'미스터트롯' 1회는 흡사 SBS TV '스타킹'을 다시 보는 듯했다. 마술을 하며 노래하는 사람, 남녀 목소리를 번갈아 내며 홀로 듀엣이 가능한 참가자, 그리고 실력과 귀여움으로 장전한 유소년부까지 2시간이 훌쩍 넘는 방송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짝 채웠다.

뒤이은 현역부는 하이라이트였다. '트로트계 방탄소년단'이라 불리는 장민호부터 노래만으로 심금을 울린 임영웅, 영탁까지 그동안 열악한 활동 환경에서 빛을 보지 못한 가수들이 제대로 된

## 성인 전유물 공식 깬

## TV조선 '미스터트롯' 인기

## 2회 시청률 17.9% 기록

무대를 만났다.

트로트 현역부의 활약과 더불어 천명훈 등 다른 영역 가수들 도전도 화제가 되면서 2회 시청률은 17.9%로 경중 뛰어올랐다. 그야말로 끝 모를 상종가다.

'미스터트롯'을 넘을 듯한 '미스터트롯'의 성공에 대해 방송가에서는 "충분히 예상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11일 통화에서 "미스터트롯" 성공으로 실력을 갖췄지만 지금까지 전면에 나오지 못한 트로트 인재가 많이 모일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했다"며 "그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루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유소년부의 화제성 견인을 살펴보면 '미스터트롯'을 통해 트로트 장르에서 나이라는 장벽이 깨진 걸 알 수 있다"며 "온 가족이 보는 프로그램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평론가는 또 '미스터트롯' 연출은 '미스

롯'보다도 정공법을 택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스터트롯"은 안착하기 위해 미스코리아 콘셉트를 차용하는 '무리수'를 뒤 노이즈 마케팅도 있었지만, '미스터트롯'은 시장을 선점한 데다 인물들이 충분히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오디션 핵심은 인물이고, 인재 풀이 충분하니 제작진도 편집으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터트롯'을 총괄 기획한 서해진 TV조선 국장도 이번 시즌은 기본에 충실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서 국장은 "오디션이 가진 기본 임무에 충실해 지려 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시청자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악마의 편집' 없이 실력 있는 인재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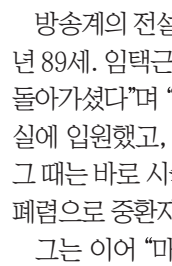
이어 "이번 시즌에서는 단순히 노래로만 경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퍼포먼스와 쇼 연출을 통해 볼거리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라며 "유소년부를 신선했다는 등 트로트는 성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깨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실력자들이 대방출될 것"이라며 "미스터트롯"에 남자 특유의 파워가 더해지면 역동적 퍼포먼스도 줄줄이 펼쳐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 가수 임재범·배우 손지창 부친 '아나운서의 전설' 임택근 별세

향년 89세 ... 유족들 "가족 곁 편안히 눈 감아"



고 임택근

방송계의 전설 아나운서 임택근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임택근 유족 측은 12일 "전날 오후 8시께 돌아가셨다"며 "지난해 10월 심장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11월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 때는 바로 시술해서 괜찮았는데 지난날에 다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고, 가족이 직접 간병해 가족 곁에서 편안하게 가셨다. 하지만 유언을 남길만한 상황은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택근은 라디오조차 귀했던 방송 격동기, 목소리 하나로 대중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1세대 아나운서다. 연예인 부럽지 않은 라디오, 흑백TV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고인은 서울 종로 출생으로 연희대학교 1학년생이던 1951년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그는 당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이후 율리프 중계 방송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1964년 MBC로 이직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69년에는 아침 프로그램인 '임택근 모닝쇼'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TV 프로그램 명칭에 MC 이름이 들어간 첫 사례였다.

한국 방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 아나운서 임택근은 다소 복잡한 가족사로도 종종 언급됐다. 그의 아들인 가수 임재범은 2011년 KBS 2TV 토



가수 임재범



배우 손지창

코스 '승승장구'에서 아버지 임택근과 이복동생인 탤런트 손지창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임재범은 두 번째 부인, 손지창은 세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혼외자식이다. 세 부자(父子)는 연이 끊어진 채 살다가 가족사가 공개된 후 잠시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8시 예정이며, 장지는 용인 천주교회다.

상주는 임재범이다. 배우 손지창과 그의 부인인 배우 오연수도 함께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인은 전 주한 미국 대사인 성 김(한국명 김성용)의 외삼촌이기도 하다. 성 김의 아버지이자 전 중앙정보부 요원인 김기완은 임택근의 자형이 된다. /연합뉴스

## 주진모 측 "휴대전화 해킹 내용 유포 시 법적 대응"

배우 주진모(사진) 측이 휴대전화 해킹 내용이라며 떠도는 '지라시'들과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주진모 소속사 하이브라더스코리아는 10일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라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가공 후 유포 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는 주진모가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사생활 유출을 협박받았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공부야 마니?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10주년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11	00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낭만닥터 김사부 2(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다큐 공감(재)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플 셀러드(재)	20 나쁜사람(재)	00 신년특집 정재영의 이슈IN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거리의 만찬(재)	00 5 MBC 뉴스 25 특집다큐멘터리 제주산악여성인물, 최정숙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육탐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영화가 좋다(재)	10 언니네 쌀롱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다큐 인사이트(재)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UHD 특선 다큐 라이프 오프 코알라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건문록 스페셜

##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8:3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00 똥덩이 유치원	14:45 물랑	19:00 스파이더맨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가 폴리(재)	20:00 머털도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30 아웅명명 귀여워2(재)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40 아웅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땅 끝 사람들 러시아-겨울 왕국 사하〉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덩이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밤상 위의 겨울 1부 문어가 공치를 만났을 때〉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3일(음 12월 19일 乙卯) ☎ 010-9790-8237

36년생 일반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48년생 농치면 후회하게 될 소중한 찬스가 생길 것이다. 60년생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72년생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 한 동안 계속 되리라. 84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96년생 근본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3, 56

37년생 위기를 잘 넘기자. 49년생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 61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73년생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 되겠다. 85년생 아는 것이 오히려 우환의 씨앗이 되리라. 97년생 겸손의 결과는 투자 없이 얻는 순이익이리라. 행운의 숫자 : 51, 03

38년생 어중간하여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할 수다. 50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닥을 잡는 것이 생산적이라. 62년생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관찮을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86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98년생 본인의 아늑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28, 67

39년생 주변의 평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행한다면 효과는 클 것이다. 51년생 상당한 충격 속에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63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침을 이룬다. 75년생 하나 씩 진전을 보이며 길사가 발생하면서 행운이 깃든다. 87년생 부수적인 요소들까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99년생 영등한 제의를 받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5, 72

40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52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4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지에 주목하라. 76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판국이다. 88년생 안정이 곧 성공의 초석임을 알라. 00년생 기존의 판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3, 22

41년생 자주 접하다보면 익숙해진다. 53년생 세심하게 살피면서 가야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65년생 노파심을 버리고 편하게 지내도 되는 마당이다. 77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89년생 좋은 인연과의 혼란한 일이 있을 것이다. 01년생 재수불공 한다면 소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0, 78

42년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54년생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기회이다. 66년생 이익이 따르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78년생 지혜로움을 발휘한다면 후환을 면하리라. 90년생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02년생 피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1, 14

31년생 내버려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을 다 한다. 43년생 굴러 들어오는 복덩어리를 놓치지 말라. 55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 의미가 있다. 67년생 흡수에 문헌 속을 찾아내는 기쁨이 보인다. 79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91년생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8, 88

32년생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진행방향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될 지경이다. 44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56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리니 기쁘고 경사라 할만하다. 68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0년생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92년생 작은 차이는 무시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58

33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으니라. 45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57년생 혼신의 힘으로 매진해야 겨우 정취할 수 있겠다. 69년생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백 번 나은 것이다. 81년생 과유불급이라 하였으니,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93년생 철저히 면서도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3, 95

34년생 일시적인 현상이나 조건에 좌우 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46년생 재물과 은인이 사방에 보이는 형상이다. 58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70년생 지 금이라도 반전시키는 것이 백만 닢이다. 82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94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행운의 숫자 : 52, 43

35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둬야만 후사를 도모 할 수 있다. 47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9년생 주변 인물로부터 인정받거나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71년생 차선책까지 모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해도 된다. 95년생 활동력에 따라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02, 51